

외국 독자 사로잡는 소재 찾아야

3 우리 책 수출하기

조승훈

을지서적 외서부 사장

영어권 독서시장의 한국관련 서적 시장규모, 공급을 맡은 출판사, 그리고 공급되고 있는 출판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관련 서적은 물론 그 이의 분야의 서적도 우리나라 출판업계가 진출할 전망은 아주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제 우리 출판업계가 미국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출판물은 어떤 것인가 알아 본다.

■뉴 에이지(New Age)

요근래 몇해동안 미국의 베스트셀러에 반영된 미국 독자들의 독서취향은 단연 영혼의 관리 문제에 쏠려 있다.

몇해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은 육체의 관리, 즉 건강(wellness)과 체중조절(diet) 등 외모관리에 있었으나, 이제는 육체에서 정신으로 옮겨졌다. 이 변화가 두드러지게 표출된 출판분야는 '뉴 에이지'이다. '뉴 에이지'의 인기는 비단 이런 변화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좁은 뜻으로 '뉴 에이지'란 서기 2000여년 경에서 시작되는 서양 점성술상의 '새 시대-New Age' 즉 '물병자리 시대-Age of Aquarius'를 말한다. '뉴 에이지'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한편 넓은 뜻에서의 '뉴 에이지'란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전통적인 기성 서양 종교, 철학 내지 학문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광범위하게 통틀어서 말한다. 따라서 미국 출판업계에서는 불교·유

교·힌두교 등을 위시해서 각종 민속종교는 물론 무속·무술·민속요법까지도 '뉴 에이지'로 분류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출판물 중에는 미국 독자들을 매료시킬 만한 소재가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중국·일본·인도와 다른 전통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禪, Zen)과 풍수, 각종 예언과 관상술, 뜬(침술과 지압은 이미 미국 독자들에게 잘 알려졌으나 우리의 뜬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음) 등은 '뉴 에이지'에 심취되어 있는 그들을 사로잡기에 훌륭한 소재들이다.

이런 유의 중국·일본·인도계의 서적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실례는 수없이 많다. 예를 들면 '손자병법'이 기업경영의 지침서로 변모하면서 이제는 미국 중역들의 필독도서가 되었다. 일본 사무라이의 대표인 '야마모토 무사시'의 사무라이 수련과정은 현대 '비즈니스맨십'에 전용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인도 의사 초프라가 인도철학을 가미한 건강 및 생활지침서는 출판되는 것마다 다 베스트셀러이다.

■새로운 한국적인 것

과거 우리의 역사, 한국전쟁이 미국의 일반독자와 학자들의 관심을 끈 주제였다면 현재는 단연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하고 주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우리 경제의 발전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면서 일본식 경영철학, 스타일 그리고 기업가들의 이야기가 미국 독서계의 베스트셀러로 나타난



영어권 시장을 겨냥한 우리 책의 기능성도 크다.

예는 수없이 많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흥미진진한 소재를 지니고 있다.

관상을 보면서 직원을 채용했다던 이병철씨의 독특한 경영 스타일, 봉이 김선달 이상의 기상천외한 경영 비화를 지니고 있는 정주영씨의 경영 에피소드 등 우리 특유의 경영철학, 발전과정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기적을 이룩한 인물들의 면모와 소재는 수없이 많다.

한국상품에 익숙해진 미국 독자들이 이런 읽을거리에 접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기이다.

■뚜렷한 시장

같은 성격의 상품이라도 겨냥하는 시장을

달리하면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시장에 공급된 한국관련 서적은 보다 넓은 폭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독자층의 명확한 규정없이 막연하게 최대공약수를 겨냥한 책들이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겨냥한 책이라면 그저 막연하게 대학교 도서관을 겨냥했을 뿐, 숫적으로 우세하고 상대적으로 도서관 구입 절차가 간소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같은 공공도서관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니치 마케팅, 분할 마케팅 등 고객중심의 상품, 경영을 부르짖고 있는 90년대에는 묵은 것을 다시 정리할 수없이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 있으며 또 이런 작업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

한길사가 프로정신을 가진 '젊은 출판인'을 찾습니다

1996년! 한길사가 스무살의 젊은 청년이 됩니다.

한길사는 격동과 도전의 시대를 숨가쁘게 살아오면서 시대의 요구와 새로운 지적문화의 토대형성이라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왔습니다.

책을 만드는 일은 끝없는 실험의 연속이며 사람과 시대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출산의 희열입니다.

출발선상에 새로운 각오로 다시 선 한길사에서 가슴 벅찬 당신의 레이스를 시작하십시오.

주 | 한길사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4층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기획·편집·디자인·업무 경력 및 신입 약간 명
·경력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 경험자 / 기획·편집은 외국어 능통자 우대

2. 전형방법 서류심사-면접

3.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A4 4매 내외)

4. 접수미감 1996년 9월 15일

·접수처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주)도서출판 한길사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515-4811~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